

60여개국 참여... 에너지 효율성 등 발표

■ 5개월 앞둔 UEA 광주정상회의 의미·준비 상황

대표단에 광주 인식 마케팅 보완 필요
유럽 녹색 선진도시 참가 유도 시급

“2011 UEA(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이하 UEA 광주정상회의)”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6년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에 이어 5년 만에 개최되는 국제 규모 행사다. 광주시는 이번 UEA 광주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속에 광주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녹색도시로의 도약을 꾀한다는 목표다.

최근 광주시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2011 UEA(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공동개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한 외교관을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으며, UEA 광주정상회의의 기획단 주최 준비상황 종합보고회를 갖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UEA 광주정상회의 개최 의미= 현재까지 UEA 광주정상회의에 참석 의사를 밝힌 도시는 54곳(시장 참석 33곳 대표단 참석 21곳, 표 참조)이며, 광주시는 이달까지 외교체절을 총동원한 사전접촉을 통해 65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도시는 물론 UNEP, UN-Habitat,

UNDP, World Bank 등 국제기구 9곳의 참여가 확정됐으며, 이들 단체의 사무총장들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10월11일부터 14일까지 DJ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UEA 광주정상회의에서는 광주시와 UNEP가 공동개발한 도시환경평가지표와 도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를 의제로 삼고, 참가도시들과의 협의를 통해 그 결과물을 광주선언문으로 담게 된다.

광주시는 격년제로 시상하는 UN-EP·광주 전담 녹색도시 대상을 제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행사 개최의 성과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회의 일정·프로그램 윤곽=참석 도시 정상 및 대표단은 오는 10월11일부터 8일간 DJ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시관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3박4일의 일정을 시작한다.

12일 UEA 광주정상회의의 개회식은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 반기문 UN사

■ 광주정상회의의 참여 확정 도시

◇ 정상 참석	
● 대륙별 (도시수)	
아시아(15)	카불(아프가니스탄), 히로시마·기타큐슈·사이카이(일본), 쿠르네갈라·마델레스 리랑카, 자카르타·수라바야(인도네시아), 칭다오·리자오(중국), 푸트라자야(말레이시아), 나그푸르(인도), 치타갈(방글라데시), 앙콘·네페도(미얀마)
유럽(4)	비엔나(오스트리아), 예테보리(스웨덴), 시나이아·바이아 스프리예(루마니아)
아메리카(7)	샌 안토니오·버클라·포틀랜드·샌프란시스코(미국), 칸쿤(멕시코), 퀴토(에콰도르), 파나마(파나마)
아프리카(7)	케이프타운(남아공), 나이로비(케냐), 마푸토(모잠비크), 요하네스버그(남아공), 니오로두립(세네갈), 바넨데카메룬, 아보메이(베냉) ● 총:33곳
◇ 대표단 참석	
● 대륙별 (도시수)	
아시아(16)	프놈펜(캄보디아), 스토크홀름(스웨덴), 테헤란(이란), 예루살렘(이스라엘), 요코하마·기타노고야·오사카(일본), 상하이·난징·우시(중국), 방콕(태국), 카라치(파키스탄), 앙카라(터키), 캄페르(라오스), 티슈켄트(우즈베크스탄), 싱가포르(싱가포르)
유럽(1)	라이프치히(독일)
아메리카(4)	새크라멘토·로체스터·덴버(미국), 바이아에콰도르) ● 총:21곳
● 총 참여도시 수 : 54 (아시아 31, 유럽 5, 아메리카 11, 아프리카 7)	

무총장의 영상 축하메시지 상영, 샌프란시스코시장의 환영사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도시들은 ‘도시환경 평가 지표에 의한 환경도시 조성 방안’, ‘도시 CDM에 기초한 도시의 기회와 도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총회를 이틀간 이어간다.

◇유명 도시 참가·마케팅 전략 보완 필요=광주시는 유럽 참가도시가 5곳에 불과해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브라질의库里치바 등과 접

촉을 계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 도시 정상과 대표단에 광주를 인식시킬 수 있는 이벤트나 마케팅 전략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시환경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인 만큼 정상 및 대표단의 이동수단을 대형승용차가 아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자동차로 하거나 가까운 거리이동의 경우 자전거를 타도록 하는 등의 특색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MB “靑 개편 필요한 자리만 하겠다”

임태희 실장 유임 가능성 시기도 7월로 늦춰질 듯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시기도 오는 7월경으로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9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 전 관저에서 전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열고 “한 나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자리 잡는 것을 봐야 한다”며 “청와대 개편은 필요한 자리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당초 예상과 달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시기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끝나 7~8월경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오

는 15일 귀국한 뒤, 이달 말에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청와대 개편의 핵심이 될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로 선출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친박(친 박근혜)계와 소장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중도성향의 황우여 의원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개편이 어려운 임 실장을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일단 믿고 기용을 하면 쉽사리 바꾸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고 있다.

이와 함께 백운호 정책실장 역시 이 대통령의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보좌했다는 점에서 유임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색하고... 혼수하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미공개 사진 전시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린 추모전시회 '바보 노무현을 만나다'에 미공개 사진 20여 점이 전시된다. 2002년 대선 때 홀로 사색에 잠긴 故 노무현 대통령(사진 왼쪽)과 시장통에서 벌어진 장기관에서 혼수를 두고 있는 故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노무현 재단 제공

쾌적한 환경·주변 아파트값 상승 기대

가동·중단 반복 환경피해 주범 주민복지시설 탈바꿈

■ ‘골머리’ 상무소각장 2013년 폐쇄 영항

광주시 신도심의 대표적인 민원 유발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을 이르면 2013년까지 폐쇄하기로 하면서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년간 광주시와 상무지구 주민들의 핵심 현안이었으며, 유해성 여부를 두고 법정 분쟁까지 촉발됐기 때문이다.

민선 5기 들어 강운태 광주시장이 ‘상무소각장 폐쇄’를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최근 구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760여원짜리 상무소각장은 주민복지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의 상징 도심 속 소각장=상무소각장은 지난 1996년 6월 760여원을 들여 착공해 3년 만인 1999년 5월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기는 광주 신도심으로 떠오른 상무지구 조성되는 과정이었으며, 착공시점부터 입지타당성

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소각장은 광주시의 계획대로 추진됐다.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거치면서 2001년 7월에야 정상 가동하기 시작했다. 2003년 4월 소각로 1·2호기에 하자 발생해 중단됐고, 이후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2001년 ‘상무소각장 설치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 소송은 무려 5년이 지난 2006년에야 결론이 났지만 주민과 광주시의 갈등 고리를 끊어내지는 못했다.

특히 지난해 6월 포항공단 연구용역팀이 상무소각장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한 결과 카드뮴과 니켈 등 일부 중금속이 검출되고 다이옥신 등의 환경영향권이 상무지구 아파트 전 지역을 포함해 1.3km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주민

들은 이를 토대로 광주시에 상무지구 전체를 상무소각장 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난색을 표하자 주민들은 한때 소각장 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이 상무소각장 폐쇄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쾌적한 환경’ 주민 기대감 커져=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감제특(52) 위원장은 “강 시장이 공약대로 상무소각장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이 소송은 무려 5년이 지난 2006년에야 결론이 났지만 주민과 광주시의 갈등 고리를 끊어내지는 못했다.”

광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으나 상무소각장을 주민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상무소각장이 폐쇄될 경우 주변 아파트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종환 “임기내 LH 이전 결론 내겠다”

“퇴임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지방 이전 문제는 결론내고 가겠다.”

지난 5·6 개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

이 밝혔다.

정 장관은 “LH이전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약속”이라며 “(LH이전 방안과 관련해) 정 부안은 잡혀가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본사 이전지 결정 문제는 이르면 다음주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거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 장관은 재임기간 사력을 다해 추진해온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0년간 고속철도, 인천공항 등 어려운 국가 사업을 해왔지만 4대강 사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쉬웠다”며 “법 정부차원에서 협조해줘 일하기 좋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 장관상

광주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광주도시공사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공사의 핵심 사업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과 과감한 경영개선을 통한 공사의 발전을 이끌어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개혁을 선도한 점을 인정해 유공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기관은 2010년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기관 중 선정됐으

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최종발표됐다.

김영진 도시공사 사장은 “전 직원이 광주도시공사를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광주시의 발전에 도모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명실공히 우수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기관 표창 시상금 2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주) ELYSIA
엘리시아
www.elysia.co.kr
상무본점 062_385_3000

외식문화품격
엘리시아만의
자랑입니다

엘리시아
나주점
웨딩컨벤션홀

웨딩홀, 돌잔치, 회갑연, 기업체세미나, 단체모임

예약상담 및 접수 062)385-3000, 061)332-1111
위치 : 나주시 송월동 LG화학 맞은편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 엘리시아의 명성 그대로!

해물샤브샤브에서
이어갑니다

신선한 해물만을 사용하여
생생한 바다내음을 전해 드립니다

영업시간 오전 11:30~오후 10:00
예약문의 ☎062)513-4000
내비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843번지

엘리시아 해물샤브샤브
해물샤브샤브 용봉점 ☎062)513-4000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elysiaaa
위치 : 용봉동 비엔날레 전문 앞